

시편 64편 묵상 -
악인은 자기가 쓴 화살에 맞지만,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그분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개역	사역
<p>1 하나님이며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p> <p>2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p> <p>3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p> <p>4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p> <p>5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히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p> <p>6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p> <p>7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에 상하리로다</p> <p>8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p> <p>9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p> <p>10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p>	<p>지휘자에게, 다윗의 시편</p> <p>1 하나님, 탄식하는 나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¹⁾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p> <p>2 악한 자들의 모임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숨겨 주십시오.</p> <p>3 그들은 <u>혀</u>를 칼처럼 버리고 독한 말을 <u>화살</u>처럼 겨누고 있습니다.</p> <p>4 온전한 사람을 <u>쏘려고 숨어 있다</u>가 <u>갑자기 쏘고서도</u> 두려워하지 않습니다.</p> <p>5 그들은 악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덧을 몰래 놓으려고 모의하면서 '누가 <u>보겠느냐?</u>' 하고 말합니다.</p> <p>6 그들이 악한 것을 찾아내고²⁾ “우리가 찾고 찾던 일을 끝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과 <u>마음</u>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p> <p>7 그러나 하나님께서 <u>화살로 쏘시리니</u> 그들은 <u>갑자기</u> 쓰러질 것입니다.</p> <p>8 그들의 <u>혀</u>가 그들 자신을 해하니 그들을 <u>보는</u> 이마다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p> <p>9 모든 사람이 다 <u>두려워하여</u> 하나님의 <u>행하신</u> 일을 말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p> <p>10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분께 피할 것이고 <u>마음</u>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p>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약 3:2). 말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지 않게 되고, 그러한 마음에서 응답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다툼이 끝난 후에도 그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64편에서는 몇 가지 대조를 통하여 주제를 강조합니다. 64편은 2-5절과 7-9절에 일곱 단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³⁾ 2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시작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마무리됩니다. 두 가지

1) 직역하면 ‘원수의 공포’다. ‘공포’는 ‘공포스러운 공격’의 환유(metonym)로 이해하여 ‘위협’으로 옮겼다.

2) ‘찾다’(하파쉬)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온다. 악인들이 찾고 찾아서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3)

<p>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2절)</p> <p>혀를 칼처럼 (3절)</p> <p>독한 말을 화살처럼 (3절)</p> <p>갑자기 쏘고서도 (4절)</p> <p>쏘려고, 쏘고서 (4절)</p> <p>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절)</p> <p>'누가 보겠느냐?' (5절)</p>	<p>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고 (9절)</p> <p>그들의 혀가 (8절)</p> <p>하나님께서 화살로 (7절)</p> <p>그들은 갑자기 쓰러질 것입니다 (7절)</p> <p>화살로 쏘시리니 (7절)</p> <p>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여 (9절)</p> <p>그들을 보는 이마다 (8절)</p>
----------------------------------------------------------------------------------------------------------------------------------------------------------------	--------------------------------------------------------------------------------------------------------------------------------------------------------------------------

의 행함을 처음과 마지막에 둬으로써 그 중간의 내용을 모두 포괄합니다. 원수는 몰래 숨어서 갑자기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살을 ‘하나님의 화살’로 삼아서 원수를 치십니다. 원수는 자기가 쓴 화살을 맞아 쓰러입니다. 악인은 ‘누가 보겠느냐?’ 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대조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악인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막아주시는 것을 일곱 가지로 대비하여 노래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대(對)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독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하는 것을 전반부의 마지막 절인 6절과 후반부의 마지막 절인 10절에서는 ‘두 가지 마음’으로 대조합니다. 악인이 행한 것을 묘사한 후에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6절) 하고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한 후에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10절) 이렇게 전반부의 결론과 후반부의 결론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시인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주님께 피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원통함이 풀렸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피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악인이 받는 심판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64편을 “악인은 자기가 쓴 화살에 맞지만,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그분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읽어가려고 합니다. 악인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대비하는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구합니다.

1. 악인에게서 구해 주소서 (1-2절)

- 1 하나님, 탄식하는 나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 2 악한 자들의 모임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숨겨 주십시오.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1-2절을 보면, 시인은 한 사람이지만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많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함께 모였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시인에게 다가옵니다. 집단적으로 모인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혼자 있을 때와는 달리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앞에서 선동하던 사람도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악인들의 모임과 그러한 소동을 보고서 즉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숨겨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악인들과 대결하려 하지 않고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악인들의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2. 악인의 행동과 생각 (3-6절)

1) 악인의 화살 (3-4절)

- 3 그들은 ~~혀~~를 칼처럼 버리고
독한 말을 화살처럼 겨누고 있습니다.
4 온전한 사람을 ~~쏘려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것은 독한 말입니다. 그들은 혀를 칼처럼 버려서 날카롭게 하고 독한 말을 화살처럼 겨누고 있습니다. 그 화살은 문자 그대로 독화살이고, 그것을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거짓말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합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많은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는데(참조. 약 3:5),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말을 칼처럼 버려서 사용하려고 지금 악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칼처럼 혀를 버리고 독한 말을 활처럼 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큰 효과를 내게 하려고 짧지만 정확한 말을 신중하게 고를 것입니다. 화살을 쏘 때에 정신을 집중하고 손에 흔들림이 없어야 과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숨어서 독한 말을 돌릴 때에도 정확한 시점을 택하여 그러한 말을 전파시킵니다. 독한 말을 하되 온갖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그들은 80%의 사실만 말하고 20%는 암시하는 정도로 가볍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20%를 채워서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몇 차례 말이 돌면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그렇게 채워서 듣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파되는 말이 정확히 누구에게서 나온 말인지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는 숨으면서 시인을 없애려고 합니다.

죄악을 행하려는 악인이 없애려는 대상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 오히려 눈엣가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쏩니다. 무방비의 상태에 있을 때를 노리다가 갑자기 쏩니다. 온전한 사람에게 해악을 입혔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마땅하겠으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렇게 행합니다. 시인은 그들의 행위를 묘사한 후에 그들의 말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서 계속하여 묘사합니다.

2) 악인의 완전한 계획 (5-6절)

- 5 그들은 악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덧을 몰래 놓으려고 모의하면서
'누가 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6 그들이 악한 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찾고 찾던 일을 끝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벼린 칼과 숨어서 쏘는 활을 사용하는 그들은 악한 말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덧’도 몰래 숨겨 놓치고 모의하면서 ‘누가 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혼자서 그러한 일을 하려면 조금 주저되기도 하였겠으나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니깐 그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서

찾고 찾던 그 일이 이제 끝났다.’ 이제 계획한 대로 행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숨긴 덧은 아무도 발견할 수 없고 이제 자기들의 계획이 완전히 시행될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꾀를 자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공격하는 ‘행위’를 3-4절에서 말하고 5-6절에서는 그들의 ‘말’을 말한 후에 시인은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고 ‘마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공격하는 일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덧을 놓는 것도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을 잘 아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인을 공격하는데, 그 일의 시작은 악인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함께 다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변하여 그 길목에 덧을 숨겨 놓거나, 그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악한 말을 하게 되는지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참으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편에서도 말로 공격한 예들을 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지은 시인데, 그때 압살롬은 다윗을 가리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3:2) 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들이 그러한 말을 퍼뜨리면서 아버지에게 반역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과 마음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시편 41편을 보면 시인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41:9) 하고 호소합니다. 병문안하러 와서 위로를 하던 친구가 밖에 나가서는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41:8) 하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시인을 미워하던 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시인을 해하려고 꾀하였던 것입니다(41:7).

시편 3편과 41편을 보면, 숨어서 독한 말을 화살처럼 쏘는 일이나 덧을 놓는 일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로 공격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관한 거짓말을 돌리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덧을 놓는 것도 그 사람이 다니는 길목을 하는 사람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던 가까운 친구가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 충격은 매우 큼니다. 사람의 생명은 서로 연합되어서 피어나는 것인데,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덧을 놓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속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데, 시편 55편에서는 시인 앞에서는 매끄러운 말을 하나 실상은 뽑힌 칼로 시인을 대적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 12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 13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同類),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 14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시인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였다고 하는데, 그 동기를 12절에

서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말로 표시합니다. 시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인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친구였던 사람이 시인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옥한 말로 그를 헐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서라도 그를 없애려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속과 마음은 깊어서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여서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사 29:15-16).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사 45:7).

원수는 완전한 생각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넘어집니다. 악인의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죄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없애신 것입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사실을 노래합니다.

3. 하나님의 화살 (7-9절)

- 7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쏘시리니**
그들은 **갑자기** 쓰러질 것입니다.
- 8 그들의 **혀**가 그들 자신을 해하니
그들을 **보는** 이마다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 9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죽음만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쏘시리니” 하면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처럼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한 자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7-9절에서는 그 반전을 일곱 단어를 중심으로 간략하고 강건한 필치로 서술합니다.

악인이 독한 말을 화살처럼 쏘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살을 그들에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쏘고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자 그들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화살들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은 단수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발백중의 궁사(弓師)이기 때문에 여분의 화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 하나로 그들이 모두 갑자기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악인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거짓말을 불화살처럼 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쏜 화살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의 혀의 말로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은 바로 악인의 화살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7편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옹덩이를 파 만들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7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시 7:15-17).

악인들은 온전한 사람을 쏘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인을 해하려 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보

왔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독한 말을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는데, 악인들의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였습니다. 악인들이 꾀를 내어서 행한 일은 수포로 돌아간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을 찬송합니다. 악인의 행위가 완전히 헛되게 된 것을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서 알게 되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 의인과 정직한 자의 찬송 (10절)

10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분께 피할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보고서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의인은 교만한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의로우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악인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노래합니다. 사실 악인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정직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모두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계속하여서 여호와께 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에서도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구원을 얻은 순간에도 여호와께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직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원수가 숨어서 쏘는 곳을 찾아서 지적하고 그들의 음모를 드러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시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께 피하여야 합니다. 숨어서 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기뻐하고 주님께 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관하여서는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악인에 관한 묘사의 마지막은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는 말로 끝났는데 이 시편의 마지막 문구도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는 말로 끝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대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악인의 행동의 근본 원인으로 ‘마음’을 지적한 시인은 자기의 ‘마음’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채웁니다. 그는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은 시인이 자기 마음도 여전히 악하다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시인은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피한 자를 버리시는 일이 없이 품어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이 노래를 마치는 것입니다.

5. 두 가지 종류의 행함과 시인의 마음

64편은 죄악을 행하는 자의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악인의 마음과 시인의 마음을 대비합니다. 악인의 일과 하나님의 일만을 대비하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식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악인의 마음과 마음의 정직한 사람의 찬송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는 일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 피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두 쌍의 대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니다.

1)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것과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일

64편은 악인들이 언어의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많이 결집하여 온전한 사람을 공격하려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친한 사람을 말로 공격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러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그윽히 혈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일은 오늘날에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의 악플 같은 것으로 더 교묘하고 심각하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꾸며내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여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편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온전하신 분으로서 악인에게서 말로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선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러한 말을 한 것인데, 그렇게 행한 동기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속과 마음은 것처럼 부패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로 성경을 외웠던 그들이 그들 마음의 시기심을 없애지 못하고 율법에서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거짓의 아비에게서 종으로 살던 데에서 나오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요 8:31-59).

거짓말로 어려움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폭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새사람으로 지어 주시려는 거짓의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피한 것처럼,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핵심 문제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모두 거짓의 아비에게 속하여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시인은 악인의 거짓과 공격을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이해하였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생각을 높이지만 마음이 정직한 시인은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64편을 예배에서도 부르고 생활에서도 부릅니다. 거짓과 폭력의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짓과 폭력의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받아 주실 것을 믿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생활에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이웃을 그욕히 하는 말을 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무익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피하면서 서로를 세워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관계를 이루면서 나아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시고, 거짓과 폭력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매우 복잡적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말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시 139:1-4). 그러한 분을 부르면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24) 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무도 거짓말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서 피할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시 2:12) 하고 끝나는데, ‘의지하는 자’는 ‘피하는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호와와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고(시 1:1)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시 2:12) 선언합니다. 그 중간에는 헛된 것을 읊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시 2:1-3)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시온 산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세웠다고 선언하시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와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비난하는 말이나 폭력을 당하였을 때에도 이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피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과 폭력이 없어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이 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쏘시리니” 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그 분께 피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짓말과 폭력의 고통을 다 당하신 사실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2008년 12월 14일)